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코로나 강타' 삼척시청에 몰수승 시즌 12승 8패, 승점 24 확보 남은 1경기 상관없이 확정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이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13일 삼척시청에 10-0 몰수승을 거두고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경기를 앞둔 삼척시청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따라 광주도시공사가 몰수승을 거둔 것이다.

시즌 12승 8패, 승점 24를 기록한 광주도시공사는 이날까지 리그 4위를 유지, 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을 결정지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올시즌 상위권 전력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포스트시즌 진출 멤버들이 견제한다 신인 보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규리그 득점왕, MVP를 거머쥔 강경민, 베스트7에 뽑힌 원선필, 김지현 등 장단 이래 최고 성적을 일궈낸 선수들이 올해도 기록 없이 팀

을 이끌었다. 에이스 강경민은 129골로 득점부문 4위(13일 현재)에 오르는 등 맹활약했다. 그는 컬러풀 대구와 경기에서 역대 13호 개인통산 600골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올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입단한 송해수는 공수에서 맹활약,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 받았다. 골키퍼 박조은은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냈다. 2라운드부터 투입된 박조은은 방어율(38.46%) 부문 2위에 올라있다. 10개 숫자운데 4개 가까이 막아낸 것이다. 골키퍼이자 팀의 만인보 손민지는 SK 슈가글라이더즈전에서 1500세이브를 달성하는 등 팀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으로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다. 선수단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2경기를 몰수패한데다 선수들이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오세일 감독의 뛰어난 용병술과 선수단의 팀워크로 난관을 극복하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달성했다. 여기에는 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핸드볼협회의 관심과 지원도 한몫했다.

특히 지난 시즌 창단 이래 9년 동안 12승에 그친

팀을 포스트시즌 진출로 이끈 오세일 감독은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력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다. 그는 "무엇보다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포스트시즌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와 첫 경기를 가질 가능성이 커졌다. 올시즌 상대전적에서 3패로 열세인 광주도시공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대다.

오세일 감독은 "올시즌 SK와 3차례 싸워 모두 패배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포스트시즌은 모든 게임이 사실상 결승전이고 변수가 많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승리를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청(승점 30)이 이미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가운데 부산시청공단, SK, 광주도시공사가 18일로 예정된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2~4위를 정하게 됐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정규리그 4위라는 최고 성적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통합 3위에 올랐다.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오른쪽)이 지난 11일 강원도 횡성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남개발공사전에서 슈팅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동계 패럴림픽 폐막... 그래도 도전은 계속된다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이 13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전 종목에 출전해 인간승리에 도전했지만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다. 사진은 한국 선수들의 6개 종목 경기 장면. 위부터 아래로,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좌식 경기에서 역주하는 신의현(왼쪽)과 바이애슬론 남자 스피린트 좌식 경기에서 사격하는 원유민, 아이스하키 이탈리아전에서 골을 넣고 환호하는 정승환, 장동신(왼쪽)과 휠체어컬링 캐나다전에서 투구하는 백해진, 스노보드 남자 보드크로스에서 역주하는 박수혁(왼쪽)과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시각장애 부문에서 질주하는 최사라와 가이드러너 김유성.

AI페퍼스도 추가 확진... 여자배구 포스트시즌 축소

현대건설·인삼공사 등 확진자 속출 경기 재개 날짜 20일로 미뤄져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AI페퍼스는 지난 1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AI페퍼스는 지난 8일 선수 1명이 확진된 이후 선수단 전체가 PCR 검사를 진행했다. 9일에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튿날 유증상자 3명을 별도로 PCR검사한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민경, 문슬기, 박은서도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 출전 가능 선수는 10명으로 줄었다.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엔트리(12명)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현대건설과 GS칼텍스, KGC인삼공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 6일부터 시즌을 일시 중단했으며, 재개 날짜는 20일로 미뤘다.

이로써 여자배구 시즌 중단 기간은 26일로 늘어났다.

다만 포스트시즌은 축소할 방침이다. 연맹은 "여자부의 누적 리그 중단기간이 26일이 됨에 따라 포스트시즌 미개최 여부를 시행하기 전 최종적으로 구단과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고, 포스트시즌 축소진행을 7개 구단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연맹이 제작·발표한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르면 리그 중단 기간이 14~23일일 경우 정규리그 수는 유지하되 포스트시즌을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 단판, 챔피언결정전 3전 2승제로 각각 축소한다. 24~28일간 중단되면 6라운드 정규시즌을 종료하고 포스트시즌은 열지 않으며, 중단 기간이 28일을 넘어가면 2년 전처럼 리그를 조기에 종료한다.

그러나 연맹과 7개 구단은 매뉴얼을 백지화하고 일정을 재편성해 경기를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맹은 "여자부 인기상승을 유지하고 팬서비스를 제공, 마지막까지 최선을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다. 포스트시즌 진행 시 일정 소요기간 등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단은 6라운드까지 정상적으로 소화한 뒤 포스트시즌을 치를 예정이다.

5판 3선승제인 챔피언결정전은 3판 2선승제로, 3판 2선승제인 플레이오프는 단판 승부로 축소한다. 준플레이오프가 성사될 시 역시 단판 승부를 펼치며, 준플레이오프는 기존 규정대로 4위 팀과 3위 팀의 승점 격차가 3점 이내로 좁혀져야 열린다.

연맹은 "여자부 리그 일정은 재편성하여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연맹은 남은 기간 동안 남녀부 시즌 완수를 위해 구단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아이스하키, 중국에 져 동메달 불발

'철인' 신의현 6종목 완주 한국, 패럴림픽 노메달

한국 장애인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동계 패럴림픽 2회 연속 메달 도전이 아쉽게 불발됐다.

한민수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2일 중국 베이징 국립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 결정전에서 개최국 중국에 0-4로 졌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동계패럴림픽 출전 사상 첫 동메달을 딴 한국 장애인아이스하키는 이번 대회 2회 연속 메달 획득을 노렸다.

하지만 전날 준결승에서 캐나다에 0-11로 완패한 뒤 이날 중국에도 패하면서 7개 팀 중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경기 시작 4분 6초 만에 선제골을 허용한 한국은 2쿼터도 중국의 '에이스' 선이핑에게 추가로 실점했고, 3쿼터도 막바지에도 리훙관과 선이핑에게 점수를 내주고 말았다.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메달 획득이 무산되면서 대회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한국 선수단은 메달

'0개'에 그쳤다.

장애인노르딕스키 '간판' 신의현(창성건설)은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국립바이애슬론센터에서 벌어진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좌식 미들(10km)에서 34분51초4의 기록으로 34명 중 10위에 오르며 일정을 마쳤다.

함께 출전한 정재석(창성건설)은 41분30초4로 28위다.

평창 대회 크로스컨트리스키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던 신의현은 이번 대회에선 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크로스컨트리스키 3종목, 바이애슬론 3종목 등 6종목에 출전한 그는 약 57.5km를 완주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의 '최연소 국가대표' 최사라(서울시장애인스키협회)는 연청 국립알파인스키센터에서 열린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시각장애 부문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49초37로 10위에 자리했다.

종합 순위 1위는 중국이다. 이날까지 금메달 18개(은 18-동 23)를 쓸어 담았다. 금메달 10개(은 10-동 8)를 수확한 우크라이나가 2위, 캐나다(금 8-은 5-동 10)가 3위를 지켰다.

시즌 첫 스노보드 월드컵 '배추 보이' 이상호 동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처음 출전한 국제 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하이원)가 "많이 아쉽지만 남은 월드컵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호는 12일 이탈리아 피안카발로에서 열린 2021-2022 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회전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예선을 2위로 통과한 이상호는 16강과 8강을 차례로 승리했지만 준결승에서 마르코 오페르(이탈리아)에게 0.22초 차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 한국 스키 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이상호는 지난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도전했으나 8강에서 0.01초 차로 져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상호는 이번 시즌 FIS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스노보드 알파인 종합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상호는 경기 후 대한스키협회를 통해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며 "4강 결과가 특히 아쉬움이 컸다"고 털어놨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더 배트맨
- 2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3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안테벨룸
- 4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5관 더 배트맨, 블랙라이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 6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9관 더 배트맨
- 7관 씨네케틀 언차티드
- 8관 씨네케틀 극장판 주술회전 0, 블랙라이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 2022.04.02.(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